

폭염 속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 총력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재난상황반 운영·3개 부서 합동 대응체계 가동

전주시가 장기화된 폭염과 대풍 북상 등 복합적인 여름철 기후 재난에 대비해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동물정책과와 3개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농업인 인명 보호와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농업재해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며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 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협 등 유관기관과 재해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 예찰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센터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해 구조적 취약 요인 해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내 저수지·소류지·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여수로 퇴적물 제거 등 기능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만지재 등 6개 소류지 준설과 사동제 보수·보강 등 근본적인 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또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폭염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교육,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온열질환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관내 농업 분야 온열

질환자 발생 건수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현장 예찰 등을 통해 폭염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고령 농업인과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해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쿨토시·물병·이온음료 등 예방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장예찰활동 184회, 안전교육 23회를 실시했으며, 안전 물품 603개를 지원하는 등 리플릿·마음방송을 포함해 총 1만3862건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과 아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 열음물 1천여 병을 현장에서 직접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축·수산 분야의 경우 시는 전주시

역 25개 축산농가와 7개 수산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폭염·호우 대비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환풍기·안개분무시설 등 온도 저감시설 가동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전주시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양봉 2개 농가(370군)와 양식장 1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육환경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4657만 원 규모)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찾아오는 복합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농업정책과·농업기술과·동물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지원 ‘청년창업 점포’ 운영

맞춤형 컨설팅·사업화 자금 지원…8개소 문 열어

전주시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새롭게 문을 연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총 8개의 청년창업 점포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선발된 8개 팀의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체계적인 창업 계획 수립 △점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드 설정 방향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고, 이를 실제 매장 경영에 적극 적용해 점포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시는 청년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임차비와 인테리어비, 재료비, 마

케팅·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8개 청년점포들은 △반려동물 공방 △이끼 화분 △생활한복 제작 등 청년들의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8개 청년 점포는 △이탈리아 몽페유(반려동물 공예 작품, 효자동) △토리의 정원(스칸디나비아 이끼 화분, 서신동) △코리터(친환경 K-허리치마, 중앙동) △그림썸머하우스(지역과일 디저트, 진북동) △본실크(실크플라워, 만성동) △포인트미(수제케이크&풍선, 덕진동) △범물(K-구름과자, 혁신동) △카페시월(로컬디저트 전문점, 송천동)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3대 핵심 농업인프라 조성 ‘착착’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등 추진 순항

전주시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핵심 기반이 될 3대 농업인프라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사업 등 3대 농업인프라 조성사업이 각각 공사착공 단계를 지나 준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학교 및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물류·유통 거점으로, 도도동 491-4번지 일원 부지면적 4624㎡, 연면적 2937㎡(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오는 2027년 6월 준공 및 이전 운영을 목표로 지난 3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운영계획 수립과 관리 조례 제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농가 소득 안정화에 직접 기여 △지역 내 먹거리 자급을 상승 △신선·안전 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가공·창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도도동 488-2번지 일원

부지 1955㎡, 건축면적 411.5㎡(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24억6800만 원이 투입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는 전처리실과 습식가공실, 실습교육장 등 11개 기능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달부터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창업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가공 장비 구입 등을 완료하고 6월부터 준공 및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조성되면 원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공품으로 전환해 소득 증대 및 창업보육 프

로그램, 신규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청년·귀농인 유입 촉진에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는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소규모·고령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 총사업비 29억5300만 원이 투입돼 완산구 중안동 1550-54번지에 부지면적 3295㎡, 건축면적 657㎡(1층 참고) 규모로 건립됐다.

시는 이달 중 임대용 농업기계 10종 78대를 구입해 입고하고, 오는 9월 중 분소 개소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운영되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 농업인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가 농업인들이 AI시대에 발맞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머(Media Farmer)’를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 AI 활용하는 ‘미디어파머’ 양성 나서

전주시가 농업인들이 AI시대에 발맞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머(Media Farmer)’를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변화하는 소비시장과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총 40명의 미디어파머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단순한 정보화 교육을 넘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고, 우수 교육생을 현장 강사로 육성해 농업인이 다시 농업인을 가르치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생생형 AI를 활용한 유

튜브·숏폼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실천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 추가 심화교육을 거쳐 예비 강사로 육성하고, 향후 농촌마을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순환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시는 AI 활용 역량을 특정 교육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농업인 전체로 확산시키는 한편, 미디어파머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해 AI 기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청년 1인가구 요리교실 ‘온담키친’ 운영

전주시는 올해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한 ‘2026 전북청년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청년이음전주에서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온담키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온담키친’은 청년들이 쉽고 건강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생활 중심의 요리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한 집밥 만들기 △저비용·고영양 식단 실습 △



제철 식재료 활용법 △식생활 관리 교육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유휴 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제 조사 대상 농지 3만3476필지(3954ha)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의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의

약 97%(3만 2404필지, 3808ha)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8882필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조사원 18명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업경영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거나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를 객관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